



보도 일시	2022. 7. 5.(화) 11:00 7. 6.(수) 조간	배포 일시	2022. 7. 5.(화) 09:00
담당 부서 <총괄>	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	책임자	과장 김재형 (044-201-2171)
		담당자	서기관 장다은 (044-201-2172)

어려운 대외여건에도 2022년 상반기 농수산물식품 수출 지난해보다 14.6% 증가한 62.1억 불로 역대 최고치

- 농식품 45.0억 불, 수산물식품 17.1억 불로 각각 역대 최고치 경신 -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와 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, 이하 해수부)는 2022년 상반기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.6% 증가한 62.1억 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농식품과 수산물식품 각각 역대 최고치이다.

- *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(억 불): ('20년) 36.0 → ('21년) 41.8 → ('22년) 45.0(7.9%↑)
- ** 상반기 수산물식품 수출액(억 불): ('20년) 11.0 → ('21년) 12.5 → ('22년) 17.1(37.2%↑)

농식품의 경우 러-우 사태 장기화, 전 세계적 물류난 지속, 중국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, 한류 확산과 케이(K)-푸드의 꾸준한 인기 및 물류난 등에 따른 현장 애로 해소 노력 등에 힘입어 쌀가공식품, 라면, 과자류, 음료 등이 수출을 견인했다

- * 상반기 품목별 수출액: 쌀가공식품(90.4백만불, 13.3%↑), 라면(383.7, 20.0↑), 과자류(314.6, 11.5↑), 음료(277.9, 8.9↑)

쌀가공식품은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 및 한식과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미국 중심으로 즉석밥, 떡볶이, 막걸리 등 인기가 높았다.

- * 국가별 수출액: 미국 43.1백만불(32.9%↑), 신남방 16.1(3.2↑)

라면은 세계 1위 라면 소비국인 베트남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제품(매운맛, 할랄라면 등)이 인기를 끌고 대형유통매장, 편의점 및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한 입점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.

- * 국가별 수출액: 중국 91.9백만불(34.9%↑), 신남방 72.2(22.2↑), 미국 47.9(28.3↑)

음료는 동남아 국가 중심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수요가 늘어났고, 알로에 음료, 과일청과 차(茶)를 바탕으로 한 건강음료 인기 등에 힘입어 수출이 확대되었다.

* 국가별 수출액: 신남방 93.4백만불(21.9% ↑), 미국 54.6(33.7 ↑)

수산식품도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도 김, 이빨고기, 전복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여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했다.

* 김 375.9백만불(13.8% ↑), 이빨고기 56.4(117.3 ↑), 전복 29.0(43.7 ↑)

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이자 전 세계 114개국으로 수출되는 김은 가공용 마른김을 비롯하여 반찬용 조미김·스낵(간식)김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꾸준히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, 수산식품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연 수출 7억 불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.

* 상반기 김 수출액 : ('20) 286.8백만불 → ('21) 330.4 → ('22) 375.9

이빨고기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남극해에서 직접 잡은 심해어로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하여 미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.

* 미국 상반기 이빨고기 수출액 : ('20) 17.0백만불 → ('21) 21.3 → ('22) 46.7

* kg당 이빨고기 단가 : ('21.상) 17.7\$/kg → ('22.상) 31.4\$/kg(77.4% ↑)

전복의 경우,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일본 및 베트남으로의 활전복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, 냉동 손질된 가공 전복은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.

* 일본 상반기 전복 수출액 : ('20) 13.9백만불 → ('21) 14.7 → ('22) 21.8(48.2% ↑)

* 베트남 상반기 전복 수출액 ('20) 1.6백만불 → ('21) 1.82 → ('22) 3.85(111.1% ↑)

농식품부는 신선농산물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만큼 생산단계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농식품 전용 선박과 항공기를 통해 물류를 안정화하는 한편, 국가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여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.

이 중 하나로 추석에 본격 출하되는 신선배(조생종)는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빠른 점을 고려하여 검역을 조기에 개시하고 물류,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주 수출시장 미국으로 차질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딸기, 포도는 동남아·중화권에서 최고급으로 판매되는 만큼, 고급 유통매장 입점을 확대해 선물용 수요 등을 공략하고, 해외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품종 개발과 시범 판매 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한다.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, 장류는 발효식품 효능 등 우수성 홍보와 한류 콘텐츠 연계 마케팅을 강화하는 동시에, 식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지 식문화와 어울리는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.

한편, 코로나19 이후 물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적 운송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식품 전용 선박 및 딸기 전용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, 수입식품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된 중국에는 수입 판매상을 대상으로 통관과 물류를 지원하는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.

아울러, 하반기 국가별 코로나19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 ‘한류 식품 박람회(K-푸드 페어)’, ‘대규모 수입 판매상(바이어) 초청 수출상담회(BKF: Buy Korean Food, 11월)’ 등을 온·오프라인으로 개최해 판로를 개척하고, 2020년 개설한 중국 티몰(T-mall) 한국식품관은 주 소비층 분석 및 인기품목 공략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중심으로 온라인 한국식품관을 11개소로 확대해 나가는 등 현지 여건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하반기 한류 식품 박람회(K-푸드 페어) 개최국: 프랑스, 중국, 말레이시아, 일본, 태국, 아랍에미리트

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“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한류·온라인 등 기회요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, 통관·물류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농식품 수출 성장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해수부는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 상승세를 하반기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,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,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.

먼저, 미국 및 호주 아마존, 중국 타오바오 등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K씨푸드관(한국 수산식품 판매관)을 개설하여 온라인 소비를 촉진하고, 미국 블랙프라이데이, 중국 광군제 등 세계 최대 소비시즌과 연계하여 주요 수출국에서 한국 수산식품 집중 홍보기간*을 운영할 계획이다.

* K-seafood Global Week : '17년부터 매년 11월에 개최 중인 글로벌 수산식품 집중 홍보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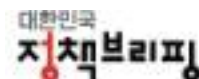
또한, 부산국제수산EXPO*와 연계하여 유망 수산제품을 수입 판매상에게 홍보하고,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무역거래 알선을 지원하는 등 수출업계의 신규 거래선 확보를 돕는 동시에, 8월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(한국수산식품 매체 제작실)를 통해 수출업계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.

* 부산국제수산EXPO : 11.2.~5., 부산시 BEXCO에서 개최

해수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“전 세계적으로 외식수요가 증가하는 이 시점이 한국 수산식품 수출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”며, “하반기에는 더 많은 나라, 더 많은 세계인이 우리 수산식품을 즐길 수 있도록 K씨푸드 글로벌 워크, 국제수산박람회 등을 개최하고,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 2022년 상반기 주요 품목·국가별 수출실적

담당 부서 <농식품>	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	책임자	과장	김재형 (044-201-2171)
		담당자	서기관	장다은 (044-201-2172)
<수산식품>	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	책임자	과장	김성희 (044-200-5480)
		담당자	서기관	강희정 (044-200-5481)



※ 본 통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통관실적(잠정치)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통계 확정시 일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음

☐ 주요 품목별

(단위 : 백만불, %)

구 분	2021.1.1.~2021.6.30.	2022.1.1.~2022.6.30.	증감률
☐ 농림수산물	5,424.5	6,217.6	14.6
☐ 농림축산식품	4,176.1	4,504.5	7.9
- 라면	319.7	383.7	20.0
- 과자류	282.2	314.6	11.5
- 음료	255.3	277.9	8.9
- 인삼류	120.9	115.7	△4.3
- 쌀가공식품	79.8	90.4	13.3
- 김치	86.7	76.9	△11.4
- 고추장	26.9	27.5	2.5
☐ 수산물	1,248.4	1,713.1	37.2
- 김	330.4	375.9	13.8
- 참치	287.9	352.7	22.5
- 이빨고기	26.0	56.4	117.3
- 굴	48.0	47.2	△1.6
- 고등어	11.7	39.0	232.6
- 전복	20.2	29.0	43.7
- 넙치	20.5	26.0	27.2

☐ 주요 시장별

(단위 : 백만불, %)

구 분	2021.1.1.~2021.6.30.	2022.1.1.~2022.6.30.	증감률
일본	996.3	1,100.0	10.4
중국	877.5	1,068.1	21.7
미국	822.4	927.1	12.7
아세안	1,107.5	1,276.6	15.3
EU·영국	330.1	426.5	29.2
러시아	123.1	103.0	△16.3